

“‘일경험’ 통해 협업 배우고 소통 중요성 실감”

‘청년이 질문하고, 기업이 대답하다’ 성료

전남여성가족재단 ‘일경험’ 사업 일환
순천대서 대학생팀 등 결과물 발표
본보 ‘미디어 직무’서 기사·영상 지원
7개 참여 기업 피드백·실무 경험 공유

전남 지역 기업과 청년들 간 공감·소통의 장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평대학에서 ‘청년이 질문하고, 기업이 대답하다-청기문답’ 행사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2025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청기문답 행사에서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 기업과 대학생(청년)팀들이 한



지난달 31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청기문답’ 행사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광주매일신문의 ‘청년 미디어 직무 일경험 프로젝트’를 비롯해 7개 기업과 대학생팀의 협업 결과물이 공유됐다.

자리에 모여 그동안 진행한 각 팀별 결과물을 발표하고 직장 문화와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매일신문은 이번 사업에 제안기업으로 동참해 ‘청년 미디어 직무 일경험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지역 이슈를 청년의 시선으로 풀어낸 기사와 영상을 함께 제작하며 열린 언론 플랫폼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대학생팀들은 기업 홍보 영상, 정책 안내 콘

텐츠, 사회 이슈를 다룬 보도물까지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제품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부터 청년 주거 정책을 다룬 공공 콘텐츠, 화장품 홍보 영상, 순환 자원 메시지를 담은 기업 소개 영상까지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콘텐츠들에 대해 현장에서는 박수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피드백이 이뤄졌으며 실무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광주매일신문이 제안한 ‘청년 미디어 직무 일경험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언급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신문사와 청년이 함께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8주간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1인 가구 쓰레기 문제, 청년 문화공간 운영 실태를 주제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 영상 제작을 병행했다.

성혜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청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결과물이었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사회적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린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행사 2부에서는 청년과 기업이 마주 앉아 일과 삶의 균형, 조직 내 소통 방식, 성평등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 프로그램 ‘청기문답’이 진행됐다.

청년 참여자들은 “실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런 회사라면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병진기자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광주매일신문 견학 체험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사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사 편집국, 광주매일TV 미디어룸 등을 둘러보고, 각 부서별 기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3차 순회교육에서 ‘신나게~ 재밋게~ 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 교재를 활용해 기사 쓰기 실제 사례와 신문 편집 디자인 원리 등 신문 만들기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

은 학생들은 취재기자의 현장 기사와 사진이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신문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

학생들은 광주매일신문만의 특화된 융·복합 시스템도 체험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며 AI의 신문 읽기도 들어보고, 본보 미디어팀과 영상 제작을 함께 하며 뜻깊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체육회-스카이장례식장 업무협약

광주시체육회가 장례서비스 전문화와 지역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체육회는 4일 오후 3시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고일관 스카이장례식장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스카이장례식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장례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카이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광주시체육회 및 회원단체 등 광주체육인들에

게 고품질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 선수, 가족 등 광주체육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시체육회와 스카이장례식장 간 협업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과거에 비해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스카이장례식장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체육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 양지사회복지관, ‘희망복지 다잇소’ 성료

광주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남구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희망복지 다잇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복지 다잇소는 남구가 올해 처음 추진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으로 지역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제공,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희망복지 다잇소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면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김 ▲고추장 ▲세제 ▲위생용품 등 다양한 생필품과 식재료를 직접 선택해 받아갈 수



있다. 류재중 양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광주경총 ‘신입직원 아침 식사·문화행사 지원’ 호응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광주 북구청과 함께 추진 중인 ‘내일이 행복한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아침 식사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 참여 기업 소속 신입직원의 조기 이직 방지와 유연하고 친화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돼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8개사) 또는 ▲문화행사(2개사)를 진행했다.

아침 식사는 커피차를 활용해 직접 기업 현장



으로 찾아가 신입직원들은 물론, 전 직원에게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제공해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임채만기자

스마트저축은행, 수해 복구 성금 2천만원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4일 “스마트저축은행이 광주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이날 스마트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조성윤(사진 왼쪽) 스마트저축은행 대표이사과 구제길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수해 복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 마련, 생계 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조성윤 스마트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집중호



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전남도, 中 저장성 청소년 33명 초청 국제교류

전남도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 세컨중학교 교육그룹 원위안 중학(HANGZHOU XUEJUN HIGH SCHOOL) 고등학생 등 33명을 초청해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진행한다.

4일 오전 열린 환영식에서는 저장성 교류단과 전남 고등학생 등 총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 등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환영식 이후 이들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갖바위, 보성 한국차박물관과 영암 농업박물관 등을 방문해 남도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양시원기자

김창우 목포해양경영광파출소 경사 해양경찰청 상반기 ‘빛과 소금’ 선정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 소속 김창우(사진) 경사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빛과 소금’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목포해양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국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적극행정과 모범을 보인 경찰관을 ‘빛과 소금’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김창우 경사는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와 협력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나홀로 조업 어르신 구명조끼 지원사업’에 응모,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30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했다.

사업 선정 이후에는 업체 견적 비교, 구매 신청, 수령·검수, 어르신 대상 배부 행사까지 직접 기획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김 경사는 선박 침수 사고 시 선저 파공 부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용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 구조 역량 강화에도 앞장섰다. 이 같은 공로로 김 경사는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특별휴가 3일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창우 경사는 “이 상은 동료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김기태 강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취임

김기태(사진 오른쪽)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4일 오전 신임 김기태 대표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신임 대표는 광주관광공사 본부장,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19년여, 무등일보 기자 등 언론계에서 16년여 각각 근무했다. 김 신임 대표는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신임 대표는 “다산, 청자, 영랑 등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과 전국 최초의 반값여행, 농촌체험민박(FUSO) 등 차별적 관광정책은 물론 마량 놀토시장, 가우도 아반경관,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등 새로 단장된 콘텐츠들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강진의 매력을 더욱 살려 누구든지 휴대전화 하나로 강진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장성경찰,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장성경찰서는 “최근 장성을 일원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경찰과 장성군, 모범운전자회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유형이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반칙운전을 근절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부음

▲고은석씨 별세, 최태진(광주 동행재활요양병원 원장)씨 모친상=발인 9일(수) 오후 1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